

Gary Chapman의 5가지 사랑의 언어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창조생태계 : 창1-2장을 중심으로

강은주 교수 (총신대학교)

I.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1962년 1-2차 경제 5개년 계획의 목표를 초과달성할 뿐만 아니라 1970년에 철강, 조선, 기계, 석유 등 중화학 공업 중심의 경제개발 성공으로 신흥 공업국으로 급부상 하였다. 1990년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후 2001년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를 이룩하고 G20에 참여하여 세계경제 문제해결에도 앞장서게 되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세계 최첨단 반도체, 디지털 산업으로 인해 세계 제1위를 차지하는 세계적 수출 품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최첨단 산업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것을 반론할 사람이나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다. 유튜브 영상에 한류의 문화에 감탄하는 외국인들의 영상을 수없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인의 인식 속에 한국이 살고 싶은 나라로 자리매김 한 것에 큰 요인으로 해석된다(고영선, 2008; 김동석, 김민수, 김영준, 김승주, 2012; 이병기, 1998).

2011년 부산에서 열린 세계 개발 원조 총회에서 한국은 세계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성장한 가상 이상적인 모델로 세계 참석자들에게 발표되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관에 대한민국의 태동 ~ 성장, 발전, 그리고 세계로의 도약을 전시한 자료들에는 경제개발과 산업화,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잘 들여다 볼 수 있다(<http://www.much.go.kr/L/m4gzA82X2z.do>).

한국의 경제의 급속 성장과는 역행하여 오늘날 가정과 사회의 역기능과 불통의 벽은 세계가 놀란 발전의 신기록을 세운 대한민국의 물질적 풍요와 발전만큼이나 높고 두

제39회 현실의 회복을 희망하고 있다(19.10.26)국의 물질적 발전, 고도의 성취, 끝없는 소유와 경쟁의 사회는 이미 자신의 삶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바쁘고 허탄하며 세대구분 없이 불안한 삶을 초래하였다(노명우, 2014).¹⁾ 또한 목적 없이 끌려 다니듯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만성 스트레스를 낳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대화, 부모-자녀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부재현상을 초래하여 많은 사회적 이슈를 양산해오고 있는 실정이다(고영선, 이재준, 강동수, 안상훈, 유경준, 2012; 김유경, 2017).

가족 안에서의 폭력, 살인, 방임, 대화부재, 진정한 관심과 사랑의 부재 등은 사회의 스트레스를 풀 곳이 가정인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 제공처와 발원지의 역기능을 감당하고 있어왔다(신기철, 2006). 2017년 아동학대로 보고된 22,367건중 17,989(80.4%)건이 부모의 자녀학대가 원인이므로 자녀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휴식처가 가정인 아님을 잘 드러내고 있다(통계청, 2019. 6. 4.). 가정뿐만 아니라 집근처, 친척집, 이웃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병원, 복지시설, 종교시설, 숙박업소 등을 포함하면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돌볼 공동책임으로 사회적 기대를 받고 있는 곳에서 아동학대의 97%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동들의 편안한 안식처, 휴식처, 믿을 만한 곳에 대한 진정한 안전성을 심각하게 검증해야할 국가사회적 책무성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성장 이후 한국의 온전하고 성숙된 국민을 정서적 돌봄은 한국이 이루어놓은 경제산업발전 이후 그 급속한 성장의 그늘 아래 방치된 진정한 인간성 회복, 진정한 개인의 행복과 돌봄의 기본이 되는 인격적인 소통이 필요한 시대적 요청을 받아 정부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2015)을 제정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진정한 인성은 그 인간의 원래의 창조목적과 창조 방법을 고찰 할 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인간 창조의 성경적 기원을 찾아보기 위해 개역개정 성경의 본문을 찾아 진정한 세계 40 여개국으로 번역된 그의 저서로 유명한 국제적인 결혼상담가인 Gary Chapman의 5가지 사랑의 언어(2010, 2018, 2019)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의 창조계와 소통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의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위임하신 하나님의 청지기인 인간의 인간관계와 소통문제를 고찰하여 원래의 선한 창조세계의 질서와 원리로 불통된 인간관계의 회복의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나님의 창조 생태계를 5가지 사랑의 언어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노명우 (2014. 9. 16). 경제 상승기 이후 한국의 여러 증상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 제66회 이화 동아시아포럼. 남산 서울클럽.

연구문제1.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연구문제2. 창조사건에 드러난 성삼위 하나님의 언어적 소통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5가지 사랑의 언어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창조사건의 생태계는 어떠한가?

II. 5가지 사랑의 언어

Gary Chapman(2010)은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상담해온 많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결혼생활 상담가로서 또 많은 지식과 강의를 통해 폭넓은 내용을 소개하는 중에 인간에게 있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언어와 소통의 방법이 크게 5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인정하는 말, 함께 하는 시간, 선물, 봉사, 육체적인 언어라는 것이다. 이들이 어떻게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하며 성경에서 본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관련이 있는지 각 사랑의 언어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설명을 제한 후 살펴보고자 한다.

1. 인정하는 말: 제1 사랑의 언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상대가 한 일이나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말로 대상을 인정하고 축하한다. 그의 생일을 축하하며 그의 작은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내게 기쁨이 되는 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게 되며 그가 힘들때나 용기가 필요할 때 우리는 상대를 인정하고 격려하며 힘을 내도록 말과 행동을 건넨다.

나의 인정과 칭찬의 사랑의 언어는 온유한 언어로 전달될 수도 있지만 가끔은 나의 잘못을 상대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의지의 언어로 전달될 수 있다. 진정한 인정과 칭찬의 사랑의 언어는 상대에게 나의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의 동의를 물으며 부탁하고 그 청을 들어주었을 때 진심으로 감사함을 겸손히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대의 잘못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의지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감정이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진정한 용서는 쌍방간의 불통을 소통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그에 대한 나의 사랑과 의지의 결단이다.

2. 함께 하는 시간: 제2 사랑의 언어

함께 하는 시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진정한 대화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그의 말에 경청하고 그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얼굴 표정, 몸짓,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가 하는 모든 것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상대가 원할 때 함께 들어주고 그의 활동에 참여해주고, 그것에 가까이 합류하는 것이다. 또한 함께 한 시간을 아름다운 대화의 주제나 추억거리로 만들어 주도록 반응하는 것이다. 그가 쇼핑을 원할 때 같이 가주고, 그가 대화 상대자가 필요할 때 함께 들어주며 그가 원하는 정보가 있을 때 함께 찾아주는 것이다. 부부가 함께 같은 취미를 즐기며 정기적인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좋은 예이다.

3. 선물: 제3 사랑의 언어

선물은 내 마음의 감사와 기억을 외형적 모습으로 상대에게 전하는 것이다. 선물을 한다는 것은 늘 재정적 문제를 동반하지만 항상 그러한 것도 아니다. 내 마음의 고마움을 편지로 쓴다던지, 상대가 내게 베푼 사랑에 대한 감사의 목록을 모두 기록하여 전달하는 일은 시간과 마음을 쓰지만 큰 재정적 부담을 갖지 않아도 가능한 선물이요 감동적인 사랑의 언어이기도 하다. 기억할 것은 진정한 선물은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상대에게 주는 것이다. 그의 위기의 순간에 함께 있어주는 것도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다.

4. 봉사: 제4 사랑의 언어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가 빠쁠 때 시간 뺏기지 않도록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가 미쳐 옷을 벗어놓고 치우지 않을 때 옷을 가지런히 걸어주는 것, 그가 신을 아무데나 벗어놓았을 때 신기 좋게 가지런히 정리해주는 것, 그가 외부에서 신에 흠을 물렸을 때 깨끗이 구두를 닦아주고 광이 나도록 구두를 닦아놓는 마음과 행동의 서비스를 말한다.

사랑하는 이가 이번 주에 무슨 식사를 원하는지 알아서 그가 원하는 메뉴의 식사를 함께 준비하거나 그가 놓친 약속이나 행사들을 메모했다가 잊지 않도록 미리 메시지 전해주는 것도 아주 훌륭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

5. 육체적 접촉: 제5 사랑의 언어

육체적 접촉은 인간이 누구나 원하는 사랑의 욕구이다.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를 안고 행복에 겨워 우는 엄마아빠의 모습, 격려해줄 때 어깨를 토닥거리 주는 것, 그와 친밀함을 확인하기 위해 악수를 하는 것, 그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손을 잡아주는 것 등 이 모든 행위가 사랑의 표현이다.

인간은 피부접촉이 없으면(심신의) 질환을 겪게 된다. EBS 특별기획 아기성장보고서에서는 모자관계의 피부접촉과 함께 하는 애착관계 형성이 행복한 아기를 만드는 조건이라고 말한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미네소타 대학의 앨런 쓰루페 교수는 생후 18개월 이전에 제1 애착 대상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가 나중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이들이 말하는 애착의 근본 조건과 모자간 육체적 접촉이 곧 심신의 질병을 발생시킨다는 이론이다. 특히 Hallow의 원숭이 실험은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것만으로 인간의 사랑의 언어는 전달되지 않으며 많은 결핍을 초래하여 결국은 비정상적 삶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Harlow, Dodsworth, & Harlow, 1965).

많은 저체중아를 출산되는 신생아들의 체중과 정상적인 발달 증진을 위한 베이비 마사지 역시 신생아들에게 하루에 일정시간의 양육자의 손을 얹어 하루 15분 정도의 베이비 마사지를 할 경우 상당한 긍정적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연구결과 보고되고 있다(Gürol & Polat, 2012).

요즘 성희롱 문제로 민감한 사회적 상황에서는 아주 조심스러운 스킨십을 하기 위해 상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함이 필수적이다. 한국인의 스킨십 행위에 대한 문화소통 기술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의 스킨십을 원하는 정도가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김영순, 변철희, 임지혜, 2010).

이상에서 Garry Chapman의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유형과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요약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이 5가지 사랑의 언어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창조사건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사소통 양상은 어떠하며 5가지 사랑의 언어와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

III. 창조사건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사소통의 양상

1. 의사소통: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

의사소통의 다음사전의 정의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막히지 않고 잘 통함”을 의미한다. Gary Chapman(2010)의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인간관계의 불통과 불협화음을 가장 잘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의 의사소통 기술이다. 그는 인정(칭찬), 스킨십, 함께하는 시간, 서비스, 선물의 언어중 상대가 가장 사랑받는 유형의 사랑의 언어를 파악하여 상대와의 불통과 불화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소통의 채널을 맞추게 되면 상대도 내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로 소통하게 되며 불통과 불화의 관계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성경의 창조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먼저 성부, 성자, 성령 3위 일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혼자 이루지 아니하시고 함께 창조에 동참하시면서 그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1:26). 우리란 복수대명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중요한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간의 소통을 통해 합의한 인간 창조를 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소통은 참으로 하나님의 신적 기원이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의 합일을 보시기 전에도 함께 일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창1:2)에서 알 수 있듯이 성령님께서 창조이전부터 창세 이전의 혼돈, 공허, 흑암, 수면 위를 운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위가 다를 뿐 이 역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함께 창조 이전의 존재들 위에 운행하시며 그들의 창조사역을 함께 개시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창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가 계속적으로 소통할 인간창조를 위해 자신이 지내기 좋은 하늘과 땅이 아닌 자신의 형상을 지닌 육체와 영을 가진 인간이 가장 살기 적합한 처소를 만드셨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원, 순서, 질서, 피조물의 직무설명, 대략,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화자와 청자간의 적극적 소통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2.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서비스

성삼위 하나님은 그와 소통할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질서정연하게 제1일부터 제6일까지 모든 창조의 사건을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하셔서 인간이 거처할 땅을 최적의 상태로 만드시는 배려의 서비스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인간이 가장 살기 편한 선물의 장소로 주셨다. 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안착을 위해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창조생태인 것은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과 깊음 -> 첫일째(빛과 어둠 창조, 낮과 밤을 명명) -> 2일째(궁창(하늘) 창조, 하늘과 땅의 물물로 나누심) -> 3일째(육지와 바다, 강 구분), 땅이 풀, 채소, 나무(유실수)를 내게 창조 -> 4일째(큰 광명체(태양), 작은 광명체(달)를 빛을 비추게 하심, 사계, 1년을 만드심(태양계, 자전과 공전, 낮과 밤의 주관, 징조, 일, 해), 별들(항성과 행성) -> 5일째(물이 생물들을, 하늘이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각 종류대로 생육, 번성, 충만케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다고 칭찬하고

복주시립기독교대학학술지인『생명의말씀』(2025) 7기 종류대로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다 하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수중생물, 하늘의 조류, 육지생물을 다스리게 하심 (창1:26)의 직무위임)들이기 위해 질서 있고 보시기 좋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이며 그가 창조할 인간이 살 가장 적합한 처소를 위해 창조 계획과 실행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에덴동산은 참으로 인간에게 주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주셨다..

3.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터전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인간이 기거할 가장 이상적 장소를 창조하실 계획을 실행해가셨다. 인간 이전에 하늘, 바다, 육지의 동물(창1:24-25), 동물이전에 식물(창1:11-12), 식물 이전에 육지(창1:9-10), 바다(창1:10)와 하늘을(창18), 하늘 이전에 궁창을(창1:7), 궁창 이전에 빛을 만드심(창1:3)으로 인간이 가장 지내기 적합한 생태계를 질서적으로 안착시켜 인간이 살 공간으로 가장 이상적인 공간적, 시간적, 환경적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셨다(창1장). 하나님은 첫 인간 아담이 그의 안식처로 살 에덴동산을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장 편한 곳으로 만들어 첫 인간 아담을 위한 배려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먹고 마시고 쉴 공간과 열매를 내셔서 그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거저 주셨다(1:29-30). 또한 그가 먹고 마실 식물이 모든 육지 짐승과 하늘의 채, 온갖 생물들에게 푸른 풀을 먹을 선물로 주셨다(창1:30).

또한 하나님은 인간이 하늘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채소와 나무열매를 식물로 거저 선물로 베푸셨으며(창1:29), 아담이 다스릴 모든 동물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고(창1:30), 동쪽 에덴의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위해 강을 흘러 에덴동산을 적셔 먹이사슬의 기원을 만들어 주셨다(창2:9-14).

하나님은 인간이 첫 임무인 땅을 경작하는 일에 함께 하시며 그가 동물들에게 어떻게 이름을 지어주는지 보려고 모든 동물들을 그에게 직접 데려오시면서 아담의 첫 과업이행을 도우시면 함께 하셨다(에도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창2:18) 그에게 배우자를 선물하시기 전에 먼저 그가 동물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려고 각종 들 짐승과 각종 새를 아담에게 일러 가서 아담이 생물의 이름 짓는 일에 피곤을 덜어드리는 배려와 서비스를 손수 하셨다(창2:19-22).

4.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창1:10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인정하고 칭찬하셨다(창 1:4, 10, 12, 21, 25, 31).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전능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다는 표현을 7회나 사용하셨다. 성경의 좋았다(good)의 히브리어 원어인 ‘토브’는 ‘위대한’(시11:2), ‘놀라운’(욥37:14), ‘완벽한’(신32:4), ‘아름다운’(전3:11) 등의 뜻을 의미한다. 전지전능하시고도 완전한 지존자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위대하고 놀라우며 완벽하여 흠이 없고 보기에 아름다운 걸작품임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그러한 귀한 피조물이 되도록 그의 의도와 언어에 순종한 결과물임을 칭찬하신 것이다.

그는 동물과 사람을 직접 손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 지으신 후 제6일에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더 크고 강하게 인정하고 칭찬하셨다. 즉 그의 마지막 피조물인 인간이 그의 창조물의 마지막 걸작품임을 잘 증명하는 구절이다(창1:31).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차별성은 그가 직접 흙으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창1:27), 복을 주시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는 자로 첫 인간에게 직무대행의 특권을 허락하심으로 그의 피조세계 위에 으뜸된 지위를 확보하시고 만물 앞에 그의 탁월한 존재감, 가치감, 정체성 등을 높여 그들 위에 그의 위치를 승격시켜 그를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행자로 복주시고 그 권위를 높이셨다(창1:26-29).

창2:9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를 통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의 표현이 그가 사랑하는 인간과 동물들의 식물이 될 나무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그 나무들 중 하나님과 인간의 분명한 경계를 둘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둠으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교제와 소통이 일방적인 것이 아닌 그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그가 내릴 결단 즉 그 나무를 먹음으로 죽을 것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약속을 지켜 살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내기를 믿고 그 일 조차 맡기신 것을 볼 수 있다.

5. 함께 하는 시간

창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란 말씀에는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복수의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그들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기를 함께 합의하셨음을 드러낸다.

창3:11) 생체고정평화(하나님은문함)10(행)하시며(창1:2) 항상 함께 하셨고 그가 가장 사랑하고 그가 손수 그의 스킨십을 통해 흠으로 만드시는 인간창조의 시간에도 함께 하셨다(창2:7). 하나님은 그가 손수 스킨십을 통해 만든 인간을 직접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일에 함께 하셨다(창2:15-19). 하나님은 아담과 동행하시면서 그의 첫 생애 직무를 수행토록 지켜보시고 그가 배필이 없음이 좋아 보이지 않음으로 그의 배필도 아담의 몸의 일부를 취하여 아담에게 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첫 여인이 첫 인간의 배필되는 시간, 부부되는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그가 자신의 배필을 살 중의 살, 뼈 중의 뼈라는 감탄과 기쁨과 놀라움의 고백의 시간에도 함께 하셨다(창2:20-25).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지내시며 그를 위한 모든 서비스와 배려는 그의 외로움에 대한 내면의 필요까지 간파하시고 그의 외로움을 채울 배필을 그의 몸에서 갈비를 떼어 여자를 만들어 주심으로 아담 스스로 그 배필에게 “여자”란 이름을 붙여주고 그의 존재를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부름으로서 그 여인의 존재감, 소속감, 정체감을 갖게 하였고 자신과 밀접한 관계로 인정하고 그를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동고동락할 배우자를 평생 함께 할 자기 사람임을 알게 하셨다.

참고문헌

- 개역개정성경 (2015). 아가페.
- 고영선 (2008).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과거, 현재, 미래.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보고서 2012-06.
- 고영선, 이재준, 강동수, 안상훈, 유경준 (2012). 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2012-06.
- 김동석, 김민수, 김영준, 김승주 (2012).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1970~2010.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08.
- 김성재 (2003). 가족과 커뮤니케이션-가족간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변화(제2회 사회연구 학술상 수상논문). 사회연구, 5, 95-114.
- 김영순, 변철희, 임지혜 (2010). 한국인의 스킨십 행위에 관한 문화 소통적 기술, 교육문화연구, 16(2). 337-364.
- 김유경 (2017. 5).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특성과 정책과제. 복지포럼 5. 71-91.
- 노명우 (2014. 9. 16). 경제 상승기 이후 한국의 여러 증상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 제 66회 이화 동아시아포럼. 남산 서울클럽.
- 다음어학사전. <https://dic.daum.net/>. 2019. 9. 12. 인출.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http://www.much.go.kr/L/m4gzA82X2z.do>. 2019. 9.3. 인출
- 신기철 (2006). 가정환경의 건강성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성숙과의 관계. 인하대 교육

제36회정학특박학문학회. 발표논문 (19.10.26)

이병기 (1998). 한국의 경제성장 요인과 산업정책의 역할, 한국경제연구원.

인성교육진흥법 (2015).

통계청 (2019. 6. 4). 아동학대 발생장소.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tblId=TX_117_2009_HJ034&orgId=117&language=kor&conn_path=&vw_cd=&list_id=. 2019. 9. 10. 인출.

Chapman, G.(2010). 5가지 사랑의 언어(개정증보판). 서울: 생명의 말씀사.

Chapman, G.(2018). What are the five love languages? Building beter marriages. https://www.growthrac.com/what-are-the-five-love-languages/?gclid=EAlaIqobChMly8zq6Kz25AIVET5gCh0KtQEQEAAAYASAAEgJHY_D_BwE. 2019. 9.1.인출.

EBS 아기성장보고서 3부: 애착. <https://www.youtube.com/watch?v=8zB7kUqFKhk>. 2019. 9.1. 인출.

Gürol, A., & Polat, S. (2012). The effect of baby massage on attachment between mother and their infants. *Korean Society of Nurning Science*, 6(1). 35-41.

Harlow, H. F., Dodsworth, R. O., & Harlow, M. K. (1965). Total social isolation in monkey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trieved from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285801/pdf/pnas00159-0105.pdf>). 2019. 8.3 0. 인출

The 5 Love Language. 2019 Northfield Publishing. <https://www.5lovelanguages.com/5-love-languages/>. 2019. 9. 2.인출.